

### 역사도시의 방황(彷徨): 화성(華城)

Suwon, The Historical City

한동수 /공학박사, 목원대 강사  
by Han Dong-Soo

『...수원갈비, 화춘옥, 푸른지대 딸기밭, 노송지대, 경남가든, 꽃밭, 밤밭, 수여선, 수인선, 신갈인터체인지, 전철, 수인산업도로, 경수산업도로, 역전, 통근, 통학,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위원회, 농촌진흥청, 새마을연수원, 수원시민회관, 서호, 장안공원, 효원공원, 문화예술회관, 서울농대, 아주대, 성균관대, 대학분교, 광고산, 팔달산, 수원성,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녕문, 연무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용건릉, 용주사, 흥남파, 고항의봄, 화홍문화제, 백일장, 학도체육대회,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 지지대 고개, 연초제조창, 선경합섬, 삼성전자, 민속촌, 경기도립 박물관, 성빈센트병원, 도립병원, 10전투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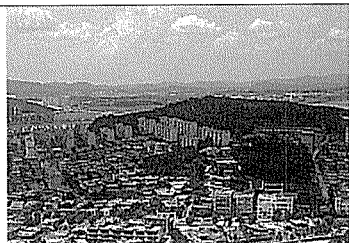
대략 이러한 것들이 필자가 수원에서 살면서 접했고 수원하면 떠오르는 낯익은 단어들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말인 1970년 6월 아버지의 근무처를 따라 수원으로 이사온 뒤 1996년 6월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여 서울로 이주를 할 때까지 26년간 나는 줄곧 이 도시에 발을 붙이고 살았다. 그러나 필자와 수원과의 인연은 이보다 몇 년 더 앞선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접한 소도시였던 용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수원으로의 이주전까지 9년여를 살았던 필자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가끔 수원에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화홍문화제의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온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에게 있어 수원은 서울에 버금가는 호기심 가득찬 도시였으며 남문 근처로 기억되는 오복회관이라는 맛있는 음식점과 단골양행이라는 예쁜 옷가게 등이 자리잡은 즐거움의 도시였다. 어머니의 손에 끌려 당시 유명했던 국산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을 본 것도 수원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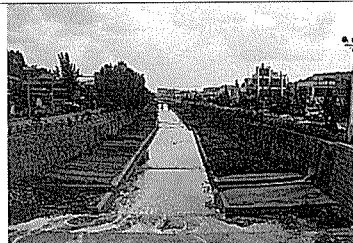
〈그림1〉 대동여지도에 기록된 서울·수원 사이의 산수와 도로체계

그후 수원에서 초, 중, 고를 마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도 필자는 수원을 떠날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수원과 이처럼 오랜 생활의 인연 속에서도 수원성, 즉 화성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정작 화성을 의식하고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게 된 것은 건축과에 들어가 4년을 마치고 한국건축사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 대학원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할 때 화성의 가치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화성을 한 번 자세히 훑어볼 수 있었다.

이같은 나의 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비례하여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문화계 역시 화성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여왔고 급기야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제 화성은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와 한국이라



화성 축조에 사용된 석재를 채취했던 속지산



이미 일부 복개가 진행된 수원원의 원래모습



역사도시의 경관을 상신했던 수원 (화서문 안쪽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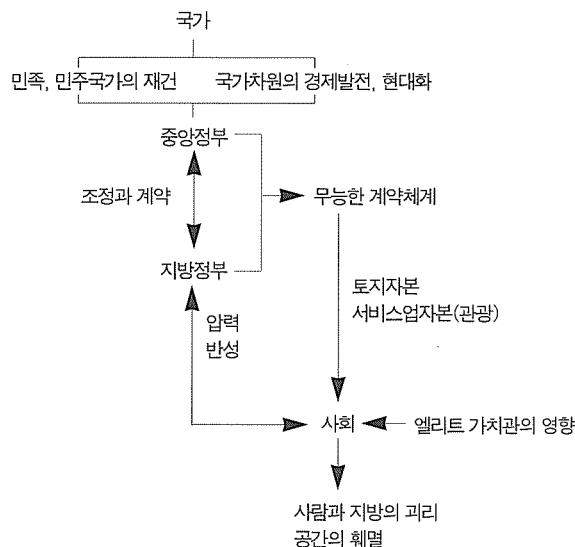
고 하는 국가범주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에 편승하여 필자는 여기서 역사도시로의 수원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화성에 대한 몇가지 감상적인 생각의 편린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단절과 연속

일찌기 일제강점기인 1931년 12월 1일에는 수여선이, 1937년 8월 6일에는 수인선 철도가 각각 개통됨으로써 수원 동으로는 여주, 서로는 인천, 남으로는 부산, 북으로는 서울을 잇는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수원 근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요건에 힘입어 수원은 1949년 시로 승격되었고 1963년 12월 10일에는 안양, 인천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도의 도청소재지라고 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변모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같은 도로교통망의 발달은 1972년 7월 수여선의 폐선을 가져왔고 수인선 역시 존폐의 논란 속에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거인이 드리운 그림자 밑에서 수원은 명색이 도청소재지였을 뿐 줄곧 중소도시의 면모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철저히 베드타운의 기능만을 강화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수원의 명맥을 이어준 것은 화성이라는 성곽의 이미지 내지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농대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역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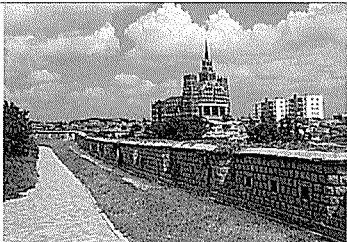
그후 선경SKC와 삼성전자단지 등과 같은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원의 경제적인 지위가 일정한 폭으로 상승되었고 대학캠퍼스의 수도권 분산정책에 힘입어 주변 곳곳에 대학분교내지는 전문대학들이 세워져 수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한 인접지역인 용인의 자연농원, 신갈의 민속촌 등이 세워져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면서 수원은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거쳐가는 도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역사도시로서의 수원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차원의 무능한 국토계획체계는 수원의 무분별한 확장과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고 사람과 지역성의 괴리내지는 모호한 도시의 공간형성을 촉진시켰을 뿐이다.

〈그림2〉 공간분열의 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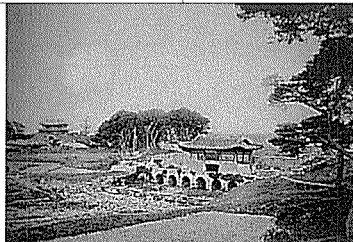


※ 사회: 시민단체, 커뮤니티 주민, 기초단체 등의 행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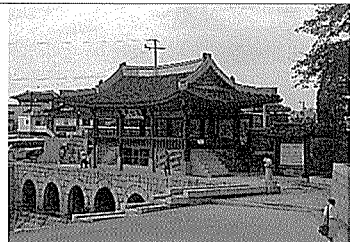
이같은 변화 속에서 수원을 그래도 수원답게 유지시켜주었던 화성은 수원의 시승격보다 몇년 앞서 1935년에 고적 제14호로, 1963년에는 사적 제3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또한 1968년에는 성내의 각 20미터 거리구간(총 65,493평)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원시가 관리단체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화성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수원과의 괴리감은 증대되었고 그 면모는 점차 훼손되어갔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복원 직전의 화성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온전한 것은 팔달문과 화서문, 공심돈, 방화수류정, 화홍문 등과 같은 몇 동의 건축물, 그리고 등성등성 허물어진 성벽뿐이었다. 현재 말끔히 단장된 장안공원도 시멘트 블록을 찍어대던 견재상들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이후 화성이 현대사의 무대에서 주목을 받아 제모습 찾기에 나서게 된 것은 70년대의 경제성장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목표는 결과적으로 진보, 현대화의 이데올로기 상황하에서 정권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였고 자본의 부단한 축적은 국가경관의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전통적인 커뮤니티와 인간관계를 와해시켰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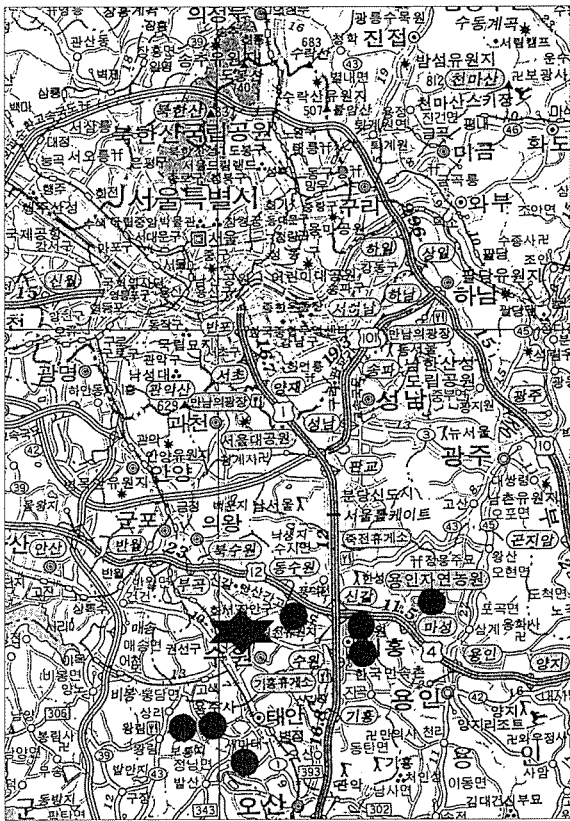


봉화대 부근의 거대한 교회건축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건축은 역사문물과의 부조화를 낳는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적다)



화홍문 부근의 아저와 오늘(좌: 대정 10년의 전경, 우: 1990년 여름의 모습)





〈그림3〉 1990년대의 교통지도(원으로 표시된 곳은 화성주변의 주요 명승·관광지이다)

죽문화의 창달이라는 구호아래 한국적 문화전통의 재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화성복원의 맥락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귀절이다.

『찬란한 국방문화유산의 정화와 지극한 효성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1974년 7월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 문화재관리국장, 경기도지사는 전문가, 전문위원 및 관계직원에게 수원성의 복원, 보수, 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sup>1)</sup>

이처럼 화성은 '각하의 의지'에 의해 제2의 봄을 맞게 된 것이다. 화성의 복원과 함께 전후로 진행된 국방문화유산의 정화사업으로는 강화도 일대의 유적지라든지 각 지역의 유엔군 참전기념비 건립 등과 같은 사업들이 있었다. 어쨌든 1974년을 기준으로 하여 14억 7천 9백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비계획으로 화성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적에 비해서 완벽한 기록물이 남아있어 원형에 가까운 복원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작업지침<sup>2)</sup>과 이를 요약한 사업방침을 잠시 살펴보자.

- 기존성곽 및 시설물이 잘 보존된 것은 이를 보수하고 유구 및 유적이 확실한 것은 이를 모두 복원한다.
- 기존성곽에 접근되어 문화재의 보호,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 및 복원보수사업에 지장을 주는 가옥

기타 시설물은 보상하고 철거한다.

- 성곽 보호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이를 매수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확정하여 정비한다.
- 기존성곽 문루 기타 시설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환경정리를 하되 붕괴, 일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해체복원하며 파손되지 아니한 부재는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붕괴 일실된 부분의 복원은 고증에 따라 실시하되 주변의 용재 및 공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원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은 기저부의 발굴조사자료 및 고증자료에 따라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헌 및 기타의 고증자료와 비교하여 현황이 크게 변모된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 지시에 따른다.
- 이 사업과 관련되는 환경정화에 따르는 조경공사 및 관광시설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 사업에 발맞추어 시행한다.
- 본 사업의 추진은 연차별로 구간을 정하여 시행<sup>3)</sup>하되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일정은 문화재관리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잔존 유구와 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시가지화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걸쳐 복원이 가능한 중요시설은 전면 복원하고 퇴락한 성벽을 완전히 보수하여 원래의 면모를 재현하고 도시의 중심부 또는 전혀 유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행궁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성곽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수하고 민가를 단계별로 철거, 이주시켜 주변을 정화한다는 방침하에 47년 계획의 5단계로 실시한다.』<sup>4)</sup>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수준의 잔존유적상태, 완벽한 문헌자료, 발굴을 통한 유구확인이라고 하는 3가지 측면의 상호인증을 통한 원형복원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적 그 자체의 복원, 보수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에 대한 정화계획을 수립한 점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작업의 진행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충족되지 못했고 부분적인 역사왜곡의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다. 더구나 사업 전반의 중점은 성곽시설과 그 인접지역의 정화에 그쳤을 뿐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성을 화성과 결부짓는 통합적인 작업이 누락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역사도시의 면모는 방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했던 역사도시의 내부구조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한 점은 또다른 역사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1) 《수원성 복원 정화지》, 경기도, 34쪽, 1980년 12월 31일.  
 2) 《수원성 복원 정화지》, 경기도, 35쪽, 1980년 12월 31일.  
 3) 이러한 연차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75년 제1단계 1차 장안문-서장대, 2차 서장대-팔달문  
 1976년 제2단계 화홍문-창룡문  
 1977년 제3단계 장안문-화홍문  
 1978년 제4단계 창룡문-동남각루  
 4) 《수원성 복원 정화지》, 경기도, 33-34쪽, 1980년 12월 31일.

최근들어 행궁을 비롯한 일부 내부시설에 대한 발굴과 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도시의 복원과 보존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화성이라고 하는 역사문화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선에 그치고만 썩이다.

### 방향의 증착역은?

문명의 사회-경제구조 및 그 문화 사이의 관계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이다. 19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전통관념은 사회구조의 변혁이 사람들의 상상력 범위를 결정한다고 여겼으며 변혁의 개념은 이와 동시에 현대경제와 현대기술을 주재하고 있다. 경제기술영역 속의 변혁은 이용할 수 있는 자본과 자원의 제한을 받는다. 정치영역 속의 상황도 유사하다. 현존하는 메카니즘의 구조, 대립경쟁하는 집단의 부결권, 모종의 전통적인 영향은 모두 그 속의 창조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표현부호와 표현형식의 변혁은 오히려 문화영역 내에서 장애없이 통행하지만 민중이 이러한 변혁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것은 여전히 곤란하지 않은 것이 없다<sup>5)</sup>. 공간의 유동성이 지방성을 대치하였고 자본의 논리하에서 사회의 분업을 심화시켜왔다. 우리 사회는 문화현상의 제반문제들을 논할 때면 늘 제도와 자본의 논리를 들먹인다. 그러나 정작 문화의 주체는 사람이다. 잘 짜여진 제도도, 충족한 자본도 문화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결국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살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화성을 조선시대와 꼭같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수원시내가 한옥으로 뻗뻗한 전통적인 풍경으로 바꾸어 놓아봐야 그 삶의 주체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사회의 구성원 의식이 화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면 수원시내가 현대식 도시로 바뀐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기본적인 역사의 흔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맥락과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면 변화는 인정해야만 한다.

또하나 최고, 최대, 최초로 집착하여 화성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이나 객관적 연구를 그르치는 학문계의 풍토 역시 사람의 범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서 제시한 공간분열의 메카니즘이라는 도식에서와 같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엘리트적 가치관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논리와 외국경험의 무분별한 적용 등이 사라져야만 한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당시 이 성곽의 축조와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역사(役事)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건축물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이지 화성의 규모나 건축술은 그다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만한 끼리가 되지 못한다. 규모와 보존의 상황이 일정한 중국의 서안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화성이 그 반열에 들어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문화유산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그렇다. 그러므로 화성의 건축유

산을 가지고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유치한 발상이다. 우리 주변에 팽배된 「문화유산=관광=화폐수익」이라고 하는 등식은 잘못된 사고의 출발이다. 관광상품으로써의 문화유산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수원과 같은 역사도시들이 걸어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아왔다. 굳이 먼 곳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서울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라고 하는 역사도시가 또다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음은 안타까움을 떠나 화성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잔인한 일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변화의 길을 사람에게서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화성의 지위와 역할, 관심을 지금 이만큼 올려놓은 것은 자본과 제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식처럼 끔찍이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1982년 처음으로 역사문화명성을 지정하면서도 간과했던 점들이 바로 사람에 관한 문제였다. 문물의 보존, 환경과의 조화, 관광개발 등과 같은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계획이론을 적용했던 대다수 중국의 역사도시들은 원래의 면모를 손쉽게 떨쳐버리고 무표정한 도시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말았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충분한 계획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또는 도면의 유희로 끝나버린 것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역시 역사도시가 가야할 옳바른 길을 왜곡하는데 일조를 기했다. 이러한 제반현상은 시간의 궤적이 달랐을 뿐 우리에게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서양의 여러 역사도시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면의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문화의 주체인 사람의 자세와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이후 최근에 관리국에서 간행된 팸플릿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미미(?)해 보며 글을 마친다.

『화성(사적3호)은 정조가 효심의 발로에서 생부 사도세자능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기존 주민을 새로운 고을에 이주시켜 1794~1796년 사이에 축성한 도성이다. 평시에 거주하는 읍성기능과 방어적인 산성의 기능을 함께 갖추었으며 건축물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꾀해 성곽 전체를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었다. 화성은 조선 후기 실용성을 추구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축성술을 연구하여 조성되었으며 축성의 동기인 효사상, 근대지향적인 건축기술, 그리고 독특한 시설 등으로 동서양의 과학기술을 통합하여 발전시킨 18세기 동양 성곽을 대표하는 한국전통건축의 완성품이다.』<sup>6)</sup>

5) 《資本主義文化矛盾》, Daniel Bell 著, 趙一凡外譯, 三聯書店(北京), 79쪽, 1992년.  
6) 문화재 관리국이 발행한 세계문화유산등록 팸플릿에서 인용함.